

<새자료 1>

‘유성기 음반에 수록된 영화설명 대본’에 대하여

자료제공:김만수*

다음 자료들은 군산대 국문과 최동현 교수와 필자가 분담하여 검토하고 있는 자료 중의 일부이다. 조만간에 3권의 CD음반으로 제작되어 시판될 예정인 다음 자료들은 당시의 대중영화와 대중극을 문학적 텍스트로만 접했던 한계, 무성영화를 필름이라는 시각적 텍스트로만 접했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 좀더 자료가 정리된 다음에는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자료를 지금껏 양호한 상태로 보관하였고, 필자 등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해준 신나라레코드유통(주)의 음원자료실과 신나라레코드 이태규 문예부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자료란에 실린 ‘무성영화 대본’은 주로 1935년을 전후하여 콜럼비아, 리갈, 빅터 등의 레코드 회사에서 LP 음반으로 제작된 것을 채록한 것이다. 그러나 실은 ‘유성기 음반에 수록된 영화설명 대본’이라는 명칭이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줄여서 ‘영화설명 대본’으로 부르기로 한다). 왜냐하면 유성기 음반에 실린 ‘영화설명 대본’이 실제의 ‘무성영화 대본’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이다.

당시의 유성기 음반은 앞 뒷면을 합쳐도 고작 6분 분량에 지나지 않으며, 두 장의 유성기 음반으로 수록된 경우에도 12분의 분량에 지나지 않는다. 물

* 군산대 교수

론 유성기 음반은 상당히 고가이고 녹음재생 시간이 짧다는 이유 때문에, 실제로 방영된 무성영화 속에 포함되어 있는 침묵의 시간이나 변사의 설명이 개입되지 않은 부분 등 녹음의 필요가 없는 부분은 제외되어 있어 유성기 음반에 수록된 6분 분량의 내용은 실제 무성영화에서는 거의 두 배 분량의 시간이 할애될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성영화’의 전체 내용이 충실하게 수록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때에 따라서는 영화의 가장 화려하고 격렬한 절정 부분만 유성기 음반에 수록된 경우도 있어 이를 반증해 준다(실제로 신경향파적인 무성영화인 <유랑>이나 외국영화 <부활>은 두 개의 대본이 다른 레코드 회사의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데, 각기 영화의 다른 부분을 녹음한 것이 확인되었다).

미리 밝혀줄 점은 이 영화설명 대본이 무성영화로 방영된 시기에 동시에 제작된 것은 아니고, 상영이 끝난 이후에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여기에 실린 영화설명 대본은 기존의 영화사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그 영화의 방영 연대, 감독, 제작회사 등의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기록과 영화설명 대본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본이 씌어진 다음 영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화의 시놉시스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영화설명 대본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여기에 실린 영화설명 대본은 영화의 상영연대 등을 보여주는 영화사적인 가치보다는, 이들 작품이 당대의 관객들이나 유성기 음반을 듣던 청자들에게 미쳤을 반응 등의 수용미학적인 측면에서 그 일차적인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 영화설명 대본의 저본이 되는 영화의 상영시기와 제작·연출, 촬영, 배우 등의 자료는 부정확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생략하였다.

이 자료에서 주목할 또하나의 존재는 ‘영화설명’ ‘극설명’의 역할을 맡은 ‘변사’라는 존재이다. 기존의 영화사 서술에서 변사는 한국영화의 발전을 가로막은 장본인으로 평가절하되어 왔다. 영화는 ‘보여주기’에 입각한 예술인데, 변사의 ‘말하기’는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관객의 심미안을 오히려 저하시켰다는 식의 서술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 또한 지나치게 서구적인 관점이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도대체 30년대의 관객들에

게 이런 심미안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엘리트주의적인 관점일 수 있고, 또한 변사야말로 '연극판'에 끼어들기를 좋아하는 한국인의 정서를 갖고 있는 존재일지도 모르겠기 때문이다. '연극판'이나 영화를 조용히 관조하기보다는 거기에 개입하여 논평하고 몰입하는 것이야말로 조선 후기의 탈춤이나 재담, 판소리 등에서부터 내려온 한국적 관람방식은 아닐까 하는 소박한 문제제기를 보낼 수 있다.

유성기 음반에 실린 영화설명 대본은 우선 일차적인 자료정리작업이 급선무이다. 한편 최근 확인된 150여 편 이상의 대본에 대한 검토 외에도, 위에서 제기된 이러한 소박한 문제제기들에 대해 보다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에 실린 8편의 영화설명 대본에 대한 개략은 다음과 같다.

나운규 작, 나운규 출연의 <아리랑>은 한국 영화사상 매우 의미있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에 실린 자료는 당시의 <아리랑>의 상영이 지녔을 공연현장의 분위기를 가장 정확하게 재구해볼 수 있는 귀한 자료라 생각된다. 중간에 삽입된 세 편의 민요 아리랑은 영화의 진전에 따라 그 가사의 내용과 창자의 감정이 적절히 어울리고 있어, 그 노래를 직접 듣게 되면 영화 중에 삽입된 아리랑 노래가 과연 어땠길래 당시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는지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여기에는 필름으로만 보관되어 있는 무성영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변사의 격앙된 목소리, 아리랑 노래가 담고 있는 구슬픈 민중의 애환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이서구 편 <김옥균전>은 구한말의 개화파 김옥균을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는 사극 영화에 해당한다. 문명 개화와 민족을 향한 애국심이 바탕에 깔려 있어 민족영화로서 손색없는 작품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오늘의 역사적 안목에서 본다면 김옥균이 일본의 힘을 빌려 개화를 추진하려 했던 비주체적인 역사관을 '동양의 대세'로 합리화하고 있는 당대의 이 작품은 친일작품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인 관점조차도 친일이라는 당대의 왜곡된 역사관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수용의 대상으로 삼을 만하다.

나운규 작 <사랑을 찾아서>는 원래 <두만강을 찾아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가 일제의 검열에 의해 제목과 내용이 바뀐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일제의 탄압에 못 견디어 북간도로 넘어간 인물들이 일경에 의해 독립군으로 착각되어 오인 사격 끝에 모두 죽는다는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검열로 인해 그 원래의 이야기가 많이 왜곡된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 무성영화의 대본에서도 일경에 의한 죽음이라는 부분은 삭제되고 마적들과의 대결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대본에서는 그저 만주 지방 유이민의 삶이 비극적으로 그려진 정도로 축소되어 있다.

여기 자료로 실린 것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영화에 해당하는 <벤티>는 로마인의 학정과 이에 곳곳이 맞서는 유대민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일제와 조선민중의 대립이라는 구도를 상징하고 있어, 단순히 흥미위주의 외국영화로만 처리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수룩했다. 로마인의 학정에 맞서는 벤티의 불굴의 용기와 의지, 로마인에 영합하여 살아가는 동족인 멧사라의 고민 등이 담겨 있다. <봉작>, <볼카> 등의 외국영화도 이와 유사한 주제를 보여준다.

대중소설가로 알려진 최독견 작 <僧房悲曲>은 '기구한 남매의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사랑에 빠진 두 남녀가 알고 보니, 남매지간이었다는 설정은 통속극으로서의 '잘 짜여진 극'의 공식을 충실하게 모방하고 있다. 출생의 비밀이 편지를 통해 장황하게 관객에게 제시되고, 그 안타까운 운명의 장난에 희생되는 남녀의 모습은 당대 통속비극을 선호하던 관객들에게 상당한 화제와 공감을 일으켰다. 이러한 작품에서 당시 관객들의 통속극 취향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처녀총각>은 경쾌한 노래와 봄날의 따사로운 정경에서 시작하여 가난으로 인해 그들의 사랑이 좌절되는 결말로 끝맺고 있다. 돈 때문에 창가로 팔려가는 신세, 그 돈을 벌충하기 위해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 감옥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소박한 구성을 통해 공식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남녀의 몰락은 이 시기의 통속영화가 갖고 있는 공식구처럼 보인다. <봉자의 죽음>, <비오는 포구>, <개나리 고개>, <풍운아> 등의 작품은 <처녀총각>과 유사한 구성을 보여준다.

<장한몽>은 <수일과 순애> 등의 영화로 제작되어 인기리에 상영된 고전

적인 레파토리에 해당된다. 술집 여급 등의 미천한 신분의 여자가 대학생이나 의사 등의 남자를 사랑하다가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춘희>나 톨스토이의 <부활>을 통해 자주 상영되어 이미 낯익은 소재였으며, 이의 집약이 <금색야차>의 변안물인 <장한몽>인 셈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돈도 지위도 없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에게 정조를 강요하고 행세하는 <장한몽>의 이수일이나 <춘희>의 주인공 알만이 오히려 부정적인 인물로 보일 수도 있다. 시대에 따라 관객들의 취향이나 생각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격세지감이 들 정도이다.

<숙영낭자전>은 조선 후기의 동명의 소설을 축약한 무성영화 대본이다. '사랑의 경쟁자'에 의해 모함을 받고 시댁의 편견과 권위에 시달리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숙영낭자의 일대기는 조선 후기와 일제라는 시대적 거리를 넘어서서 여성의 숙명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어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았나 추측된다. <장화홍련전>과 <춘향전>도 몇 번의 영화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고전소설이 여전히 관객과 독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음을 추측하게 해 준다.

아리랑

(영화설명 합동호/노래 강석연/관현악 반주/Regal C 107-108)

살진 전답과 아름다운 산천 무궁화 삼천리에 풍년은 왔건마는 한 줄기 흘러오는 아리랑의 노래는 이 동리의 백성들만 풀어놓는 설움인가.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천 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살림살이 말도 많다

정신병에 걸린 영진이는 지금도 이 노래를 부르며 슬퍼하는 누이동생 영희와 탄식하는 아버지의 티질듯한 그 가슴도 알지 못하고 남모르는 환상의 세계에서 그는 홀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영희 : 오빠 정신 좀 차려주세요. 박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박선생 : 영진이 나를 좀 보게. 사년 전에 자네와 같이 유학을 할 차로 저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던 자네 친구 현구가 돌아오네.

사년 만에 다시 오는 현구는 김개 무량한 얼굴로 사면을 바라본다. 산천은 의구하나 사람은 변했으니 영진이가 나오지 않을 줄이야. 현구는 뜻밖이었었다. 현구는 의심된 가슴을 안은 그대로 박선생과 모든 친구들의 환영에 쌓이어 영진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현구 : 오- 영진이 그동안에 잘 있었나.

아- 누구보다도 반가히 맞아주어야 할 영진이가 지금은 현구가 왔다는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현구 : 영진아. 네가 이게 웬일이냐. 영진아 현구를 왜 좀 반겨주지 못하니. 끔직히도 다정하던 네가 그렇게도 명민한 두뇌를 가졌던 네가 어찌다가 이 모양이 되었던 말이나 영진아.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오지나 말았으면 좋았을걸. 그리했다면 집도 없는 이곳에 내가 누구를 보러 왔겠니.

서산에 기우는 저녁 햇빛은 이 처량한 사람들의 얼굴을 맥없이 바라볼 때 오빠의 친구 다정한 청년, 안 보면 그리웁고 만나면 부끄러운 현구를 위하여

서 영화는 정성껏 지은 저녁밥상을 그이 앞에 갖다 놓았다. 주부와 나그네, 젊은이와 젊은이. 그들의 사이는 멀지 아니하여서 두 가슴에 숨어 있는 청춘의 붉은 꽃은 사랑의 이슬을 받아 바야흐로 피어난다. 그러나 그들의 등 뒤에는 무서운 저주의 눈이 번뜩이고 있었으니 그것은 동리의 부호로 약한자를 압박하는 천상민의 집 청지기 오기호였다. 영진의 아버지가 천가에게 값을 빚 있는 그것을 기화로 불같은 욕심을 채우고저 기호의 마수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두 사람의 사이에 흘러 나른다.

옛 터전 이 땅에도 풍년은 왔건마는 배고픈 이 사정을 누구라 알아주랴. 아리랑 노래에 장단을 맞추어 풍년맞이 동리곳은 들 가운데 열려지니 춤추는 그 얼굴엔 눈물의 흔적이요 부르는 노래 속엔 설움이 가득 찼다.

(음악)

친구도 나가고 영진이도 나가고 빈 동리 빈 집안에 홀로 남은 영화는 현구의 사진을 가만히 내어 들고 기꺼울 그 앞날을 남모르게 그려볼 때 별안간에 방문이 열리며 영화 앞에 들어서는 건장한 사나이.

영희 : 예구머니 당신이 웬일이셔요. 어서 나가주세요.

기호 : 응! 오늘은 동리도 비고 집도 비고 서울서 온 그 자식도 없으니 참으로 좋은 기회다. 자! 내 말을 들어라, 응!

돈 많은 자의 세력을 밟고 꽃같은 영화를 꺾으려는 기호는 혈안을 부릅 뜨고 영화를 들어 안을 때, 처녀는 아무리 반항하였으나 무지한 그의 팔에 꺾이어진 가는 허리! 이 때에 마침 놀이터에 갔던 현구가 돌아왔다.

현구 : 오! 이 악마같은 놈아, 영화를 거기 놓아라.

현구와 기호의 사이에는 맹렬한 육박이 시작되었을 때 영진이가 돌아와 이 모양을 보았다. 그는 낫을 찾아가지고 기호와 그의 부하들에게 달려 들었다.

(음악)

급한 소식을 듣고 동리사람들이 쫓아왔을 때 영진이는 기호와 그의 부하들을 모두 죽이고 말았던 것이다. 쌓였던 구름이 줄지에 걷혀지듯이 영진의 두뇌는 갑자기 맑아졌다. 그러나 기뻐하려는 이 순간에 벌써 싸늘한 범률의 손은 영진의 파리한 손목을 움켜 잡았다.

경관 : 너는 살인자이니 가자.

영진 : 네-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는 죽음의 길로 걸어간다.

영진 : 동리의 여러분 나는 한동안 죽었던 몸으로 이제야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웃음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우시는 걸 보면 나는 참으로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몸이 이 강산 삼천리에 태어났기 때문에 미쳤으며 사람을 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일상 불렀다는 그 노래를 부르며 나를 보내주시오.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쓸쓸한 촌락에 날은 저물고 가만한 저녁바람 소리없이 불어올 때 끌려가는 영진이의 가엾은 그 자태는 처량한 노래와 함께 멀고 먼 저 산길에 하염없이 사라진다.

세상을 요란케하던 살인사건도 이제는 끝이 나고 예심에서 면소로 출옥이 된 영진이는 아버지와 누이동생을 반가히 만나고자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잔인 무도한 천상민의 무리로 말미암아 다시 그는 고향에 서 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다. 원한과 원통이 골수에 사무치는 영진이는 약한자를 압박하는 극악한 무리들을 한칼에 죽여버리고자 생각도 하였으나 박선생의 간절한 권유로 말미암아 할수없이 그는 참아버렸다. 자기의 떠나감을 슬퍼하는 몇사람의 친구와 박선생에게 작별을 고한 다음 원한의 눈물을 머금은 그대로 그립고도 눈물겨운 아리랑의 노래에 쌓이여 사랑하는 누이동생과 아버지를 찾으며 정없는 이 고향을 다시 떠나가는 것이었다.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내 눈이 어두워 못 본다면
개천을 나무래 무엇하리

세월은 덧없이 흘러 일년 광음이 어느덧 지나갔다. 고향을 떠나 도회로 온 뒤에 해신이라는 여자와 사랑하며 지내던 영진이는 어느날 그의 사랑하는 해

신이까 까닭모를 사건으로 인하여 경관에게 잡혀가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영진 : 여보십시오, 대관절 이게 웬일입니까.

해신 : 영진 씨 용서해주세요. 저는 영진 씨를 홀로 남겨 놓고 갑니다.

영진 : 무엇이라고요 가시다니요.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나는 그동안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여 왔는지 모릅니다.

해신 : 네 고맙습니다. 저도 또한 영진씨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진 씨의 사랑을 영구히 받지 못한 이 불행한 몸이 어찌나 원망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쪼록 제가 잡혀가는 그 이유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네 영진 씨, 저는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홀로 두고 가는 저를 너무 생각은 마시고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언제나 또다시 만나 뵈옵게 될는지요.

영진이의 상한 가슴에는 새로운 슬픔이 넘쳐 흐른다. 경관에게 붙들려가는 해신이의 뒷모양. 정신없이 바라보며 탄식하던 영진이는 비로소 그것이 모두 천상민의 양자라고 하는 재일이의 간계에서 생긴 일인 줄을 짐작하였다.

응- 그렇다. 모두가 재일이 놈의 소위다. 원한과 원망에 떨리는 가슴을 진정치 못하는 영진이 그 즉시로 재일이를 찾아와 두 사람 사이에는 생명을 다 투는 무서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음악)

무서운 싸움 끝에 천재일을 죽이고 경관에게 쫓겨 달아나던 영진이는 몸을 피하고저 어떤 집으로 뛰어들어 갔더니 그는 천만 뜻밖에도 지금까지 찾고 있고 갖은 애를 다 쓰던 영희의 집이었다.

영진 : 오- 영희야 웬일이냐. 현구 그동안 잘 있었나. 그런데 영희야 아버지께서는 어디 계시냐.

영희 : 오빠 이게 웬일이세요. 그러나 아버님께서서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해서 고만 돌아가셨답니다. 끝까지 오빠를 찾으시다가 지금 막 돌아가셨어요.

영진 : 무어 영희야. 이게 무슨 소리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다니 그것이 정말이냐.

놀라움과 슬픔에 어쩔 줄 모르는 영진이는 현구와 명희를 따라 아버님의 시체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영진 : 오- 아버지 이 불효한 자식을 용서해주십시오. 어찌하야 조금만 더 기다리지 못하시고 그렇게도 바빠 가셨습니까, 네- 아버지. 외로히 남아 있는 저희 남매는 어찌하고요 누구에게 의지하여 살라 하십니까. 사랑하는 동무는 감옥으로, 소중한 아버님은 차디찬 무덤으로, 남아 있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까. 참으로 세상은 괴로와 못살겠구나. 차라리 또다시 미치기나 하였으면.

이때에 쫓아 들어오는 경관은 어느덧 영진이의 손에 포승을 걸어 버리었다.

영희 : 오빠 이게 별안간 웬일이세요. 네 오빠.

영진 : 오냐 영희야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또다시 가는 나를 생각지 말고 아무쪼록 잘들 살아라.

현구와 영희에게 눈문의 작별을 지은 다음 경관에게 붙들리어 나오던 영진이. 천지가 아득하고 가슴조차 터질 것같이 이 경관을 뿌리치고 달아나다가 그만 돌맹이에 머리를 부딪고 또다시 그의 정신은 흐리어졌다.

이윽고 가장 유쾌한 듯이 춤을 추며 나오는 영진이의 안전에는 또다시 남 모르는 환상의 세계가 전개되는 것이었다. 포승에 얼키어서 경관에게 끌려가는 그의 뒤로부터는 풍년 노래와도 같이 수많은 군중과 소년군이 행렬을 지어 따라오며, 가장 기쁘고도 즐거운 낮으로 영진 씨의 그 어떠한 승리를 축하하는 듯 무수한 깃발을 날리어주는 것과 같이 보인다. 오- 남 모르는 환상의 세계. 현실이 만일 끝까지 이렇다 하면 차라리 그는 그 환상의 세계에서 영원히 깨고 싶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지금에 또다시 미쳐진 그의 영혼은 설혹 그의 육체가 불 가운데 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오직 몽상의 낙원으로 영원히 끌려갈 뿐이었었다.

김옥균전(金玉均傳)

(이서구 편/극설명 박창원/음악 김준영/Columbia 44024-44025)

갑신 십이월 초나흔날. 야암(夜暗)을 깨치고 부르짖는 불이야! 소리. 때마침 잔치가 벌어졌던 우정국 대청에는 번개와 같이 불안한 바람이 끼쳐왔다.

김옥균 일파의 칼날같은 눈초리. 숨이 찬 위압! 바늘방석에서 나날을 보내고 때를 맞던 수구당(守舊黨)의 고관대작들은 가슴이 내려앉고 낮빛이 파래졌다. 눈치 빠른 민영익은 앞을 서서 달아나다가 대문 턱에 지키는 장사의 큰 칼을 맞아 귀가 떨어지며 피투성이를 하고 뛰어들었다.

이 처참한 광경을 본 일동은 살길을 구하고자 아우성을 치게 되니 이로써 김옥균의 개화를 기약한 정변은 그 첫걸음을 그르치고 만 것이다.

사사건건이 청국의 그늘에서 일신일가의 사육만 도모하고 동양의 대세를 돌보지 않는 민영익 일파를 모조리 죽이고 새 천하를 세워서 밝은 세상을 만들고자 피를 다한 오늘 밤.

우정국 대학살극은 주역배우 민영익을 농침으로써 무참히 허리가 꺾이고 말았다. 인제는 한시바빠 궁중에 들어가 제 이의 수단을 취하는 외에는 도리가 없게 되었다. 김옥균은 삼십일세의 피끓는 영웅아! 좌우에 따르는 박영효, 서광범도 삼십도 채 못된 흥안소년들이올시다.

그녀들은 몸은 명문에 태어났고 나이는 비록 어렸으나 동양의 선각자로 열렬한 개혁의 피가 가슴에 용솨음치는 영웅아들이었다. 젊은 그들이 꿈꾸는 새 세상, 목숨을 맹서한 개혁의 꽃다발이 지금 폭풍폭우에 애달피 떨어지랴 한다. 금호문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으나 어느 틈에 대궐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문이 닫혔다고 그대로 물러설 때는 아닙니다. 시각을 다투는 위급한 정국에 일각인들 유예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담대(膽大), 침착(沈着), 호용(豪勇)한 김옥균은 수문관을 호령하여 문을 열고 즉시 상감마마께 궁란(宮亂)이 박도(迫到)함을 품혔습니다.

때마침 궁중에 들려 오는 우뢰같은 폭발성(爆發聲)! 불이 났는지? 집이 무너졌는지? 사람이 죽은 지 헤아릴 길 없는 처참한 큰 소리!!

김옥균의 개화정책에 동정한 일본공사는 어느 틈에 일병 수백명을 보내 김옥균에게 힘을 빌리고 뒤를 이어 입시(入侍)하는 반대당의 대관들은 피가 끓고 살이 뛰는 장년국사(壯年國士)들의 서리같은 칼날 아래 땡겨떨어지니 이로써 쥐일 줄만 알았던 김옥균의 개화당은 비로소 칙허(勅許)를 얻어 천하

를 호령하게 된 것입니다.

(노래) 아침꽃 저녁달에 부치는 정은
 이 목숨 죽고죽어 진토가 되들
 오로지 동양의 길 하나이어니
 대장부 큰뜻이야 버릴 길 있나

뿌리없는 나무에 찬란한 꽃이 오래 피지 못하고 모래 위에 쌓은 탑은 하루 밤에 무너지기가 쉽다. 김옥균의 개화당 내각도 생각하면 그 조직 당시에 여러가지 무리가 있었던 것이다. 첫째 외람히 궁중에 소요를 일으켜 심려를 끼쳤으며 그 위에 일어나지 않은 내란이 있었다고 폄해서 황궁하게도 높은 명에를 경경(輕輕)히 움직임으로써 정권을 잡는 한 방도를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겨우 눈앞을 가려 놓은 거짓말이 오래 지탱할 길은 없었다.

만민에게 새로히 살 길을 열어주며 일본과 손을 잡아 동양 구원(久遠)의 화평과 복지를 꾀하고자 하던 청년내각 개화당 일파도 정권을 잡은 지 삼일만에 무참히 실각하고 말았다.

청병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수구당 일파에게 여지없이 쫓긴 몸이 되니 가슴에 품었던 큰 뜻은 이제 어디다 풀어보며 점점히 간직했던 개화의 글밭은 다시 어디가 뒷풀이를 하겠는가? 장부가 세상에 나서 뜻을 세우고 이름을 날림이 그 얼마나 떳떳하리요마는……한번 쫓긴 몸이 되는 날에는 센트헤레나로 실려가는 대영웅 나폴레옹의 피눈물이 옷깃을 적실 뿐이로구나.

“김옥균을 잡아라!”

“김옥균을 죽여라!”

수구당의 피에 주린 아우성 소리!

가없다! 고국에서 뜻을 잊은 그는 오척단신의 둘 곳조차 없어서 기역코 이제는 동경으로 목숨을 도모해 망명의 손이 되고 말았다. 사랑하는 부모처자는 모조리 청병에게 살육을 당했던만 오히려 한 목숨을 도모키 위해서 인천서 배에 오른 김옥균의 가슴은 과연 어떠했겠는가!

아! 해 떨어지는 팔미도 돛대 그늘에 정 많고 한 많은 조국을 바라보고 눈물짓는 김옥균의 가슴을 아는 이가 누구였던가?

(노래) 조정의 어둔 꿈을 깨치려 하나

시세를 얻지 못한 젊은 김옥균
장한 뜻 꺾인 곳에 쫓긴 몸 되어
아깝다 망명의 길 떠나단 말가

김옥균을 내쫓은 수구당 일파는 원세개를 하늘같이 받들어 일문일족의 부귀와 영달을 구하기에 정신이 없게 되니 가엾다! 모처럼 새 광명을 받으려는 이천만 창생은 또다시 도탄에 신음하게 되고 말았구나.

가슴에 넘치는 울분의 피를 서리어 담고 동경 객관에 망명의 날을 보내는 김옥균의 인생은 너무도 참담했으나 그의 사나이다운 기품, 희망을 잃지 않는 기개에는 탄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태산을 들어 옮기고 대해를 마실듯한 영웅아의 호기에는 일본의 정객들도 경애해야 마지 않았으며, 입을 열면 불이 날 듯이 토해내는 정론에는 젊은 지사들의 공명이 물결치듯 하였다. 여기에 그는 기어코 다시 동경에서 힘을 가다듬어 조국의 개화를 도모할 큰 경륜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김옥균에게 미치는 수구당의 박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조선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김옥균을 죄인이니 곧 잡아보내 달라는 성화같은 외교 교섭이 끊일 사이가 없었으니 국제법을 무시할 수 없는 이상 일본 정부로서는 모른다고는 할 수 없었다.

전신이 불덩이같이 애국의 피로 물들어 있는 이 젊은 영웅아를 잡아 무지한 수구당의 손에 무참히 죽게 해야 되겠는가? 아아 가엾다. 김옥균의 목숨은 경각에 왕래하고 있다. 눈을 감고 운명을 기다리는 김옥균의 위대한 침묵은 며칠을 거듭했다.

“나 한 몸 죽는 것이 초개같이 우습거니 무엇이 아깝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죽으면 나의 이 뜻을 누가 이루어주느냐. 개화의 큰 사업은 누가 성취를 해주느냐.”

창밖에 높이 솟은 달을 바라보며 김옥균은 감개에 떨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썼었다. 눈물은 요사한 계집이나 흘리는 것으로만 알던 김옥균도 오늘은 어느덧 더운 눈물로 옷깃을 적시고 만 것이다.

“김군! 안심하게. 군의 목숨은 구조되었네. 군은 용기를 거듭 돋와서 동양에 개화문명의 세상을 하루바삐 가져오게 해야 되네.”

등을 두드리는 사람은 일본의 대정객 두산만(頭山滿)이었다. 김옥균은 두산만 일파의 운동에 덕을 입어 조선으로 잡아 보내지를 앓고 잠시동안 동경에서 멀리 떠나 있기를 조건으로 타협된 것이다. 김옥균은 동지들의 비분한 눈물의 전별을 받으면서 소립원도라는 절해고도로 귀양살이를 가게 되었다. 고국을 잃고 타향에서 쫓겨 이제 또다시 그는 태평양 거친 물결에 외로운 꿈을 꾸는 적은 섬으로 실려가는 몸이 되고만 것이다.

아아 김옥균 하나만 없으면 천하가 태평하리라고 믿는 수구당 일파의 어두운 꿈을 장차 누가 깨쳐 준단 말이나?

(노래) 동방의 앞장잡이 날리는 깃발

목 맏혀 불렀으나 대답은 없고

첫아침 맞으려는 우렁찬 소리

천추에 한 남기고 사라졌구나

백길도 끊인 타국의 귀향살이. 소립원도에서 꽃에 느끼고 달에 눈물 짓기가 그 몇해런가. 조선 정부의 짓국은 시비는 여전히 끊일 줄 모르니 김옥균은 다시 북해도로 옮겨 갔다가 전후 오년만에야 겨우 동경에 풀려오기를 얻었다.

장년 삼십의 유위환 오년 동안을 그는 오로지 목숨을 도모하여 다시 일어 설 날을 기다리기에 보내고 만 것이다. 끝까지 김옥균의 목숨을 보호하는 일본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로 김옥균의 목숨을 내놓지 않으니 기어코 김옥균을 없애고자 하는 민영익 일파는 몇번씩 자객을 보내서 그의 목숨을 빼으려고 했던 것이다. 김옥균이가 살아 있고는 민영익의 마음은 일시도 놓이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김옥균의 인물과 포부와 사나이다운 기개를 잘 아는 까닭이다.

사면에 자객의 눈은 새벽같이 빛나고 일본 정부의 신세도 너무 지고만 있는 중 언제 어느 때 다시 일어서서 개화당의 깃발을 남대문에 날려볼지 기약이 아득해지니 그 가슴에는 타는듯한 초조 두 자가 무겁게 실렸을 뿐이다.

이때 마침 동경에 있는 청국 공사가 김옥균에게 청국 정부에서도 의사만 소통되면 조선 개화운동에 원조할 의사가 있으니 북경에 가서 이홍장(李鴻章)을 만나라고 간곡한 권고가 있었고 이일식이라는 자의 소개로 상해에 가서 운동비를 제공하겠다는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홍중우였다. 청국 공사의 말도 거짓말, 이일식의 말도 거짓말, 모두가 김옥균을 상해로 띄여다가 일본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할 곳으로 가서 한숨에 죽여 없애자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상해로 간다는 김옥균의 손을 잡고 말리는 동지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그는 기어코 신호(神戶)에서 기선에 올랐으니 때는 갑오 삼월 이십 오일이었다.

꽃도 지고 녹음이 한창 우거진 신호 부두에서 한많은 눈물을 뿌리고 갠생의 길을 찾아 상해로 떠나갔다. 그러나 과연 상해에서는 그에게 무엇이 돌아갔는가?

그것은 곧 무참한 암살! 홍종우의 말없는 권총 아래 개세(蓋世)의 영웅아도 하릴없이 눈을 감고 말았던 것이다. 갑오 삼월 이십 팔일 황포강에 물새가 느껴 울고 황해 건너에 슬픈 바람이 물결을 높이니 아- 슬프다! 하늘은 영웅을 세상에 보내셨건만 불명한 시국은 그를 마침내 값없이 장사지내고 말았다.

김옥균은 죽었다. 동양의 선각자는 아깝게도 무지한 총에 맞아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붉은 피로 그린 김옥균의 장한 뜻은 오히려 우리의 가슴에 남아 신동아의 새 일꾼을 격려해주지 않는가?

(노래) 황포강 흐린 물에 낚시 잠그고
 세상은 밤중인데 홀로 일어나
 고국의 시절 낚는 타향살이라
 새벽을 부르자니 바람만 차다

사랑을 찾아서

(영화설명 성동호/관현악 반주/Regal C139)

만주 땅에 산재하여 있는 악인단(惡人團)의 두목 장세원(張世元)과 명기운(明氣運)의 무리에게 쫓기어 피곤한 몸들로 간신히 정가성(鄭家城)에 돌아온 함동수(咸東洙)의 일행은 아무리 생각하였으나 갈 곳이 바이 없어 다만 얼굴만 서로 쳐다보며 탄식할 뿐이었다.

오라버니 어머니의 나라는 구름 밖에 멀어 있고 정처없는 신세들은 앞길이 아득하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에 가슴이 미어지는 사람들은 다만 무심한 저

하늘을 바라보며 말이 없을 때 어머니를 부르면서 슬피 우는 순남(順男)이! 가련한 이 모양을 바라보는 동수는 동지들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우리에게도 어머니의 나라가 있다마는 간 곳마다 쫓기는 우리의 신세! 오- 인제는 어디를 가야 옳다는 말인가.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형제를 멀리 두고 바람 차고 눈 날리는 수천리 타관에서 정처없이 표류하는 우리들의 목숨도 어찌면 이것이 마지막일런지도 모른다. 자- 사랑하는 동지들아 우리가 만일 이 별관에서 죽는다면 장례식인들 누가 지내주겠느냐. 언제든 한번은 죽고야말 사람들이니 그러면 우리들이 미리 여기에서 산 장례식이나 지내어두자.”

동수의 말이 끝나자 그들은 손톱을 깎아 한곳에 묻어놓고 동지 일곱 사람의 산 장례식은 처량한 나팔 소리에 거행이 된다.

“자- 인제는 장례식도 끝나고 또다시 싸울 때가 돌아왔다. 삼보야 너는 경숙이와 순남이의 손을 이끌어라. 그리고 충렬이와 정희는 탄환을 맞더라도 같이 맞아 죽도록 서로 붙잡고 놓지 말아 주시오.”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들어오는 놈들을 막을 터이니.”

때마침 성 너머로부터 들려오는 놀라운 총소리!

탄환이 빗발같이 쏟아지는 그 사이로 순남이와 정숙이는 서로 같이 달아나다가 아- 장세원의 탄환을 맞고 그들은 무참히도 쓰러지고 말았다.

“오- 경숙 씨! 정신을 차립시오 네!”

“아니예요 삼보 씨! 저는 상관없으니 어서 저- 가련한 순남이를 구해 주세요.”

노발(怒發)은 충천(衝天)이 되고 적혈(赤血)은 만신(滿身)에 구비쳐 흐른다. 타오르는 분한(憤恨)에 사로잡힌 삼보는 나팔 부는 노인과 함께 장세원을 쏘아 죽이었으나 아- 그와 동시에 그들의 날아오는 탄환을 가슴에 맞고 순남이와 한가지 땅 위에 쓰러진다.

독아(毒牙)에 걸리어 있는 정희와 충렬이를 구하려고 명기운을 쏘아 죽이던 동수도 동시에 그의 탄환을 가슴에 맞았다.

선혈은 입리하여 전신을 적시었고 정신조차 암울하여 얼음 위에 쓰러진다.

“오- 정신을 차리세요. 네- 오빠!”

“정희! 충렬이! 두 분의 사랑은 이제 성취가 되었으니 부디 행복을 누리어주세요. 그러나 삼보와 순남이! 그리고 경숙이는 어디를 갔을까. 아마도 오던 길을 잊어버리고 산중에서 헤매이는 모양이니 어서 나팔을 불어주세요.

사랑하는 동지들아 바람 차고 눈 날리는 낫설은 이 땅에서 속절없이 잠이 든 외로운 영혼들아. 유구한 이 강물을 건너는 저- 곳에 우리의 인연깊은 고국산천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은 우리의 혼백이나마 할아버지의 분묘가 있을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의 나라로, 인연 깊은 많은 옛 터전 그곳으로. 몸은 비록 이곳에서 죽을지언정 내 동포와 내 고향을 사랑하는 정신, 영원히 잊지 말고 조선으로 돌아가자.”

최후의 기력을 다하여 일어나는 동수의 입에서는 죽음의 길을 떠난 동포를 부르는듯이 처량한 나팔 소리가 흘러나온다.

“어디를 가시렵니까. 동수 씨! 이렇게 피가 흐르는 몸으로.”

정희와 충렬이는 아무리 붙들었으나 여전히 듣지 않고 나팔을 불면서 오던 길을 또다시 걸어가던 동수는 힘이나 용기조차 이제는 다- 진(盡)해야 얼음 깔린 저 강 위에 기운없이 떨어진다.

가만한 저녁 바람 대지 위에 흐르고 황혼의 그림자는 사위를 덮어올 때 구슬프게 들리던 나팔 소리도 이제는 어렴풋이 사라지고 적막한 하늘에는 검은 새 우짖는 소리, 마지막 길 떠난 동수를 조상하듯 처량한 그 울음만이 끝없이 흘러온다.

“오- 인제는 마지막이다. 잘 있거라 사랑하던 나의 동무들아!”

이 말 한 마디를 마치고 정희와 충렬이의 행복을 빌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동수는 얼음 위에 쓰러지니 그의 몸에서 흘러 나리는 새빨간 피는 백설과 얼음 위에 진홍빛을 물들인다. 이국타향에 외로운 그의 낮은 눈보라 비바람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운 옛 터전은 기다리고 있건마는.

벤허

(영화설명 서상필/Columbia 40143)

때는 기원전 헤롯의 왕의 시대. 이교도 로마의 세력은 승천옥일같이 절정에 달하였고 장갑병차의 발자취 소리는 전세계를 무서운 진울에 싸이게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토지로부터 학대받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는 구세주를 찾는 기도소리와 같이 물끓듯 하였다. 유대에는 이스라엘의 밝은 빛이 진흙 속에 스러졌고 그리하여 정복당하고 박해당한 황금의 예루살렘은 성벽의 그림자까지도 참담한 눈물에 쌓여 있었다.

때는 12월 24일. 나그네 무리는 요파의 문안과 문밖에 구름같이 모여들었으니 그들은 시리아 사람, 기리시아 사람, 유대 사람, 에집트 사람, 모두 다 고국을 그리워하는 가엾은 나그네들이었다. 그 이유는 로마가 전세계에 납세를 명하여 남자는 누구나 모두가 강제로 점호에 응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소란한 예루살렘의 거리에는 로마의 새로운 폭군 그라다스가 부임하게 되어 있고, 모든 인민은 극도에 달한 원망과 격분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재산을 빼앗길까 두려워하였고, 피난은 사람을 생명을 빼앗길까 두려워하여 이르는 곳마다 불안으로 가득 찼다. 횡폭한 로마의 군인들은 길을 횡단했다는 죄명 아래 젊은 여자를 잡아다가는 머리채를 끄들며 마치 개나 도야지처럼 천대하였다. 바라보던 한 사람은 분함을 견디지 못하여 원수를 갚으려 할 때, 옆의 사람은 권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다. 로마의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무엇보다도 반하하면 목숨을 빼앗긴다, 참아라.”

유대의 귀족 중에는 수백년 동안 세력을 펴고 있는 벤허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크나큰 저택에도 이 무서운 불안은 물결쳐 들어왔다. 이 때에 거리로 지나가던 벤허는 실수하여 로마 군인의 발을 밟았다.

“이 놈아 눈이 없느냐? 말할 거리가 못되지마는 너같은 인종은 이곳으로부터 떠나가거라.”

“음, 나는 나의 동무가 되는 로마의 무사 멧사라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멧사라여, 나는 그대의 근본을 자알 알았다. 유대 사람이 그대를 동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이제야 알았다.”

이 말을 들은 멧사라는 자기에게는 다시없는 모욕으로 생각하고 여러 사람

의 눈을 피하여 성 밑으로 벤허를 데리고 왔다.

“오 멧사라여! 몇 해를 그리운 대면인가.”

“오늘날 로마의 무사가 된 그대를 만나보게 된 것은 참으로 천만 의외의 일이다. 나의 어머니나 누이동생이 그대를 보면 물론 반가워할 것이다. 자 멧사라여! 우리집으로 같이 가자.”

그래도 벤허는 옛날의 동무를 잊지 않고 우정을 생각하여 멧사라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다.

“멧사라여! 그대는 참으로 잘 돌아왔다. 로마의 사람으로 우리를 알아 줄 사람도 그대밖에 없는 것이다.”

“음- 로마는 정복한 인민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복을 당한 민족일수록 로마를 몰라봐서는 아니된다? 유대인의 감정을 해하려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러나 완고한 유대인은 지배자에게 공손할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오- 나의 동무 멧사라는 로마 사람이 되고 말았구나.”

“응? 그것이 어째서 잘못되었단 말이나. 로마의 사람이 되는 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냐? 유대 사람이 되는 것은 진흙 속에 파묻히는 것이다. 너는 유대 사람이 되는 것을 잊어라.”

“멧사라여! 너는 유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냐? 너의 혈관에는 언제든지 유대의 붉은 피가 굽이치고 있는 것이다. 너는 로마의 사람이 되는 것을 잊어라.”

유대의 사람으로 로마에 가서 부귀와 영화가 일신에 넘치게 된 멧사라의 눈에는 자기의 조국도 동무도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때 마침 거리에는 집정자 그라다스의 행렬이 지나가는 나팔소리가 들리어온다.

(나팔소리)

멧사라는 밖으로 나갔고 벤허는 높은 곳에서 구경하다가 기왓장을 떨어뜨려 이로 말미암아 어머니와 누이동생과 세 사람은 다같이 멧사라에게 붙들려 가게 되었다. 벤허는 마상에 높이 앉아 호령하는 멧사라를 보았다. 그는 철천의 불안을 참지 못하여,

“오, 신이여, 심판의 날이 돌아와 나로 하여금 저에게 원수의 심판을
값게 하여 주소서.”

끌려가는 유대의 사람들. 그들은 불타는 황야를 거쳐 바다로 가는 것이었
다. 그리하여 그들은 종신토록 군용선 자르의 노젓는 조수로 혹사하게 되었다.
인간으로서는 당하지 못할 무서운 학대와 고통! 한 사람의 늙은이는 건디다
못하여서,

“오, 신이시여! 이제는 더 참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주
소서.”

베히는 옆에서 늙은이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에이 비겁한 놈. 적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생명을 달라고 부르짖어
라.”

이때 마침 선내를 순례하던 마리우스 장군이 이 말을 들었다.

“자르의 노예가 살고 싶다고? 몇 해 동안이나 너는 노를 저었느냐?”

“오냐. 너희들의 달력으로는 3년이지만 우리들의 달력으로는 300년이
다.”

“그러면 너는 어찌하여 살아 있느냐?”

“음, 나는 원수를 갚기 위하여 살아 있다.”

“그러면 너는 로마의 사람이냐?”

“아니다. 죽어도 살아도 나는 언제든지 유대의 사람이다.”

이 무서운 학대와 굴욕에도 굴하지 않고 베히는 강철같은 그 정신이 조금
도 변함이 없이 사람다운 기운을 최후까지 나타내었다.

승방비곡 : 기구한 남매의 이야기

(영화설명 서상필/Columbia 40220)

사바의 온갖 번뇌를 싣고 검은 연기를 토하고 섰던 기차를 끝없는 황야로
떠내보내는 운명의 링이 울자, 봉천행 열차는 갓난 아해의 첫울음같은 기적소
리를 부산역에 남겨놓고 무거운 바퀴를 서서히 굴리기 시작하였다. 기차는 산

구비를 돌아 주마같이 달아난다. 어느덧 왼편 창으로는 옥색 비단을 길게 깎듯한 낙동강 뿌리가 아침별에 한없이 번쩍이고 있었다.

“은숙 씨. 저기 낙동강이 보입니다그려.”

필수는 이렇게 말을 붙여보았으나 미인의 조각은 아무 대답이 없고 다만 차게 반짝이는 맑은 두 눈과 꼭 다문 고운 입술이 석자 길이가 못되는 교의 위에 살을 맞대고 앉아 젊은 남녀의 마음의 거리가 아득히 멀음을 설명할 따름이었었다. 필수는 천일여자미술학교에 다니고 있던 명진의 누이동생 명숙을 유혹하여 그의 정조를 유린한 후, 헌신같이 버리었던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음악회에서 은숙을 처음 보고 거의 일년 동안이나 황금의 무장을 갖추오고 지존의 병사를 모아 그를 정복하려 하였으나, 필수의 노력은 결국 수포에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필수는 도회에 유학가는 은숙의 뒤를 따라 동경까지 갔다가 졸업하고 귀국하는 그의 뒤를 그림자같이 따라 나섰다.

필수가 식당으로 간 후에 은숙은 그의 꼴이 너무나 마음에 미워서 옆의 자리로 옮겨 갔다. 자기의 옆에는 단정한 남자의 모습같은 대학생 교복을 입은 남자가 거의 무의식같이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차창을 꿰뚫어서 자기의 무슨 생각을 허공에 띄워나 보려는 듯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숙은 한 편에 놓여 있는 그의 행장에 명함을 보니 동경불교대학생 최영일이라 써어 있었다. 기차는 그들을 실어가지고 여전히 달리는데, 달리는 기차 속에서도 어느덧 밤의 장막은 내리었다. 연일 여행에 피곤한 은숙은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가 흔들리는 차체의 동요로 쓰러지려던 은숙은 팔을 영일의 무릎 위에 짚었다.

“아이 실례했습니다.”

은숙은 얼굴을 붉히고 자리를 고쳐 앉았다. 뜻밖의 촉감에 놀래어 은숙을 돌아보는 영일의 시선은 부드럽고도 위엄이 있어 보였다.

“아니 천만예요. 매우 곤하신 모양이십니다. 좀 주무시지요. 저는 저쪽 자리로 가겠습니다.”

어느덧 기차가 경성역에 닿았을 때는 차간이 텅 비일 만치 승객을 쏟아내렸다. 은숙, 필수, 영일 세 남녀도 다같이 혼잡한 군중의 틈에 섞이어 기차에서 내렸다. 기다리는 사람, 오는 사람.

이튿날 아침이었다. 안개를 새어 흐르는 잿빛같은 햇빛은 뿜는 듯 흩어지건마는, 운외사 골짜기를 몰아내리는 바람은 아직도 차다. 찬 바람이 불어 스치는 운외사 위에는 육십여 세나 되어 보이는 노승이 오류 명의 승도를 이끌고 영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광주 스님 최해엄 선사이었다.

운외사로 돌아온 영일은 독일 유학을 가려 하였으나, 해엄 선사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는 할 수 없이 중지하고, 13도 강산에 잦아 있는 사찰 순례의 길을 떠나갔다.

금강산 속에도 해는 저물었다. 표운사의 저녁 종소리도 끊인 지가 오래이고, 하늘로부터 내려 덮이는 검은 보자기는 위대한 보배를 조심히 싸버렸다. 영일은 무료하여 문을 열고 내다보니, 사면은 죽은듯이 고요하고 안개 섞인 보얀 달빛만이 넓으나 넓은 절마당에 물결쳐 흐르고 있다. 영일은 소리없이 흐르는 달빛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바람에 떨리는 나무 그림자를 밟으며 밝은 달을 쳐다보고 거닐던 그는 자기의 등 뒤에서 들리는 발자취 소리에 고개를 돌리어보니, 천만 의외에 그는 은숙이었다.

금강산 속의 우연한 해후! 은숙은 이화학당 수학 삼승재(?)를 거느리고 이곳까지 왔다가 발을 다쳐 교외의 산사에 머물게 된 것이 영일과 자기 사이에도 끊을 수 없는 인연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그들은 우연한 도중에서 만나 길동무가 된 후에, 천하의 기승 금강산 일경을 두루 돌아, 지금은 은숙은 서울로 영일은 운외사로 돌아왔다. 그런 후로 은숙이는 일요일같은 때에 운외사로 영일을 찾아가서 하루종일 놀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때 해엄은 영일을 불러 앉히고 영일이 너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후에 너의 진정한 승리가 있느니라. 영일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인생의 이러한 소중한 부탁을 저버리지 아니하려고, 은숙에게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할 때도 있었으며, 그리함으로 조금도 불안없는 친동기로 대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조금도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든든히 믿었던 그가 젊은이의 굳은 믿음도 깨어질 날이 닥쳐왔다.

지루하던 여름 한 철도 어느덧 저물어지고, 쓸쓸한 승방의 가을은 그윽히 승방에도 깊어왔다. 오! 나는 나의 믿음에 따라서 어디까지나 굳세여야 한다. 나는 굳세인 자다. 이렇게 스스로 믿고 그날그날을 이기어오던 영일이라도 가을

이 짊어갈수록 가을 하늘처럼 텅비는 자기의 마음의 한 귀퉁이를 무엇으로도 채울 길이 없었다. 그는 아득히 사라진 옛날의 추억으로도 보이지 않는 앞날의 희망으로도 자기의 가슴 빈 구석을 채울 길이 바이 없었다. 명상에 잠기었던 그는 마음의 대답이나 얻은듯이

“오냐 그렇다. 다같은 사람으로 인생의 꽃이라는 청춘으로, 이성을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이 모순이며 죄악이라. 나두 역시 사람이다. 신도 아니요, 짐승도 아닌, 사람이다.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려는데 이상할 것이 무엇이나? 나는 무엇보다도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던 스님의 훈계를 나의 기억 밖으로 몰아내자. 완전히 잊어버리자. 그것보다도 나의 스님의 정신을 지배한 석가의 금욕주의를 배척하자. 그리고 어리석게도 얻어오던 우상같은 불각을 헐어버리고 쓸쓸한 폐허에다가 나의 사랑의 전당을 높이 세우자.”

푸른 하늘은 청춘의 가슴처럼 열려 있고, 찬란히 솟아 오는 해는 광채를 더하여 높이높이 떠오르는 즐거운 아침 거룩한 아침이다. 영일과 은숙의 일생에 대한 행복을 가져오는 결혼식날 아침이었다. 영일과 은숙의 일생에 대한 행복을 가져오는 결혼식날 아침이었다. 은숙은 영일과 의논하고 은숙 아버지의 찬성과 후원으로 거행할 이 결혼식을 오직 은숙 어머니만은 글까지 절대로 반대하였다.

“너희 두 사람은 부부가 되지 못할 사이이다.”

아버지는 황황히 그들을 끌고나와 자동차에 태운 후에 한 장의 유서를 그들의 앞에 펼쳐 놓았다.

영일아! 은숙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아! 나는 이제 저승의 문을 열며 이 글을 너희 두 남매에게 쓴다. 오! 영일아! 네가 만일에 네 누이동생이 아닌 다른 여자와 화촉의 인연을 이루었다면 나는 남 몰래 그 얼마나 기뻐하였겠느냐? 은숙아 네가 만일 하고많은 남자 중에서 영일을 제한 다른 남자와 배필이 되었다면, 아 나는 얼마나 그 사위를 기쁘게 맞았으랴. 그러나 이 무서운 운명의 애달픈 희롱이나? 억만의 남자가 있고 억만의 여자가 있는 넓고 너른 이 세상에서 너희 둘이 결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그 무슨 눈물겨운 인과관계이나.

내 아들이 딸아 이 어미에게도 26년전이라는 젊은 시절이 있었다. 그보다 더 한발 들어가서 내 나이 열여덟살 되던 해 봄에 나는 어떤 양가의 며느리가 되었으나 결혼한 지 5년 후에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가고, 나는 남편없는 시집에서 없는 남편을 추억하며 바람부는 황혼이나 달밝은 새벽에는 눈물겨워 느껴 울며 청상의 생활을 이어 나왔었다. 그때이다. 나는 청춘에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승방에서 백일기도를 올리게 되었다. 영일아 그 승방이란 곳이 내가 26년 동안 쓸쓸히도 자라난 운외사의 승방이다. 지나간 꿈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지금의 나를 괴롭히는구나. 아직도 백일기도가 끝나지 않은 어떤 날 밤이었다. 내가 홀로 누워 있는 어두운 방에는 한 개의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으니 그 검은 그림자가 광주의 해엄이었고,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지내어온 너의 아버지의 그림자이었다.

영일아 그 후로 나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춘하추동 사시절에 운외사에서 쓸쓸히 자라나는 너를 생각하고 남모르게 흘린 눈물이 그 얼마나 많았느냐? 오 은숙아 영일아. 내가 죽은 뒤에 너희들의 짧다란 꿈같은 행복의 그림자를 짓밟고 솟아오를 무참한 운명의 거울을 보고 너희들의 놀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나는 나의 죽음을 불러놓고라도 나의 아들을 아들이, 라고 불러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대문 밖에는 이미 깨어질 너희들의 행복을 실은 자동차의 나팔소리가 들려온다. 아이들아 너희들의 앞길은 아직도 멀다. 부디 굳 세계 살아다오. 이것이 길이 떠나가는 어미의 마지막 청이요 부탁이다.

마지막 죽음에 직면한 영일의 어머니는 오십 평생을 살아온 한많은 세상을 힘없는 눈으로 다시한번 돌아보았다. 부르고 또 불러보아도 끝이 없는 영일이가 자기를 부르는 음향. 윤곽조차 흩어지는 그의 아들의 얼굴.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보는 물체로 마지막 듣는 음향으로 그는 마침내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고야 말았다. 어, 어머니 어머니. 영일과 은숙은 다같이 소리쳐 울며 어머니의 시체 위에 쓰러졌다.

황혼을 헤매이던 바람소리도, 이제는 그쳐지고 밤은 그윽히 깊어왔다. 가늘게 피어오르는 만수향 연기에 두 개의 촛불이 마주쳐서 조으는 시신에는 영일과 은숙이가 입을 봉한듯 말없는 모양으로 앉아 있다. 오! 은숙아! 너는 역시 나의 동생이었다. 한 어머니가 낳아주신 피와 같은 동생이었다. 한 어머니가

냥아주신 피와 같은 동생이었다. 오! 은숙아! 우리는 장차 어떻게 하여야할 것이냐? 26년 전에 강보에 싸서 어두운 새벽 쓸쓸한 절마당에 나를 버리고 가셨다는 어머니는 이제 나를 좀더 넓고 쓸쓸한 세상에다가 내버리고 길이 떠나가시는구나. 오! 은숙아! 그때 내어버린 고아는 아버지의 품이나마 돌아갈 수 있는 행복된 고아였다마는, 그러나 지금의 이 커다란 고아인 나로서는 돌아갈 곳이 어디이냐?

오, 오빠. 저는 갈 터이예요. 어머니를 따라 갈 터이예요. 지나가는 그림자와도 같이, 물 위에 꺼지는 거품과도 같이 쓰러지는 것이 인생이라면 인생은 죽음의 연속일 것이다. 끊임없는 장식일 것이다. 추색에 잠긴 이태원 일대는 마치 무덤처럼 더 쓸쓸하였다. 앞으로는 푸르게 흐르는 한강이 내려다보이고 뒤로는 이끼진 고층같은 남산이 돌아다보이는 높다란 외지에 흠냄새 새로운 무덤이 한 개가 늘었으니 그것은 은숙 어머니의 무덤이었다.

“은숙아 인제는 남매로 판명이 되었으니 오누이의 접촉을 하고 일생을 살아야 옳다고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도학자의 상식이다. 도학자의 상식으로 교훈 못할 상식이 내 가슴 속에 숨어 있음을 나는 깨닫는다. 자 은숙아 일어서자. 그리하여 너는 이 길로, 나는 저 길로 피차에 떠나자.”

“오 오빠!”

“오 은숙아! 가는 나를 붙잡지 말아다오. 자 이 소매를 놓아라.”

영일은 느껴 우는 은숙을 뿌리치고 표현히 떠나간다. 석양이 비껴 있는 언덕길 모퉁이로 멀어지는 영일의 뒷모양을 은숙이는 조금더 분명히 보려 하였으나 소리없이 흐르는 두 줄기의 눈물에 떠나가는 그 자태는 하염없이 스러져 간다.

처녀총각

(김병철 안/영화해설 김일성/Regal 317)

(노래) 봄은 왔네 봄이 와
숫처녀의 가슴에도

나물 캐러 간다고
 아장아장 들로 가네
 산들산들 부는 바람
 아리랑 타령이 절로 난다
 흥……

봄은 왔네 봄이 와. 방방곡곡에 봄은 찾아왔네. 젊은이의 가슴에들 어찌 봄이 찾아올 줄 몰랐으랴. 순박한 시골 처녀들의 나물 캐는 손끝에도 봄은 찾아왔네. 호미 들고 김 매는 늙은 총각의 가슴에도 봄은 찾아왔다고 공연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것을 참지 못하였다.

오늘도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순분이는 여러 동무들과 같이 나물을 캐러 나왔으나 무엇을 생각함인지 자기 혼자선 될 수 있는대로 여러 동무들과 같이 가지 않으려고 무진 밭을 머뭇머뭇하더니 필경에는 뒷산 모퉁이를 살짝 넘어 수양버들 늘어진 냇가에 가 앉더니 장도를 빼서 버들가지 잘라 가느다란 피리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가만히 아리랑 한 구절을 불러 보았다.

(노래 아리랑)

그 노래는 누구에게 보내는 노래인가……

노래 실은 봄바람은 은은히 불리어 동리 늙은 총각 길룡이의 김 매던 손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환희에 넘치는 웃음이 흘러나오더니만 한 달음에 피리 소리 나는 곳으로 뛰어 올라왔다.

“오- 순분아!”

“오- 길룡아!”

“오늘은 어찌 이렇게 늦었니.”

“길룡아 큰일났다. 인제는 아마 너하고도 이별인가부다.”

“이별 이별이라니 어떻게 하는 말이나. 속 시원히 이야기나 해주렴.”

“아버지의 빚을 갚으려면 돈 삼백원이 있어야 하지를 앓느냐. 그런데 우리 집 형편에 그 삼백원이 어디 있으며 더욱이 작년에는 흉년이 들어 집안 식구가 먹고 살기에도 힘이 드는 터에 삼백원이란 돈이 어디 있겠니. 그래서 나는 서울로 팔리어 간다. 아- 어떻게 하면……”

말을 다 붓하고 느끼어 우는 것을 보고 있던 길룡이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두 주먹을 힘있게 쥐고 하늘을 우러러 두 눈을 살기있게 부릅뜨고 잠시 묵묵히 서 있더니,

“오나 순분아! 아무 염려를 말아라. 내가 그 돈 삼백원을 만들어주마.”

“아니 네가 어떻게 그 돈을 만든단 말이나.”

“걱정 말어라. 나도 사내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팔리어 간다는 것을 그저 보고 있을 그런 바보는 아니다. 기어히 그 돈 삼백원을 만들어서 너를 구해주마.”

“오- 길룡아. 나는 무엇이라고 치하를 해야할지 웬단 말이나.”

감사에 넘치는 눈물이 옷깃을 적시니 길룡이는 측은히 여기어 순분의 땀기 끝으로 방울진 눈물을 씻어줄 때에 날아가는 가마귀는 끼옥끼옥 짓고 갔다. 과연 이 울음이야말로 두 젊은 남녀의 전도를 축복하는 행복의 징조인지 또한 무슨 슬픔을 전해주는 불행의 징조이었던지, 길룡이와 순분의 애뜻한 사랑도 이대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면 슬픈 눈물이란 사람의 세상에는 없었던 만 그렇지 못한 것이 사람 사는 세상에 으레히 찾아오는 비극이었다. 순분의 가련한 신세. 삼백원이란 돈이 없으면은 서울로 팔려 가서 천한 업으로 일생을 망치고 말 가련한 신세.

“오나 친분이 없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는데, 더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무슨 결심을 하였던지 순분이를 위로하고 헤어진 그 이튿날이었다. 서울서 온 장사치는 돈 삼백원을 순분이 아버지 앞에다 내어놓고,

“자 어서 이 증서에다 도장을 치시고 애를 서울로 보내시오. 서울이야말로 누구나 한번 다 가고 싶어하는 곳. 더욱이 순분이와 같은 이쁜 애기를 이런 시골 구석에서 썩힌다는 것은 너무나 아깝습니다. 서울만 가면 좋은 옷에 편안한 생활을 하고 여러가지 구경거리도 많고 그야말로 극락이지요. 또 사람이 출세를 하는 데도 이런 시골에서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서울만 가면 저 하나 똑똑히 굴면은 금방에 출세합니다. 자 어서 도장을 치시우.”

“애야 순분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길룡이가 어떻게 돈을 해온다고 했지만 길룡

이 역시 우리와 같은 처지에 무슨 돈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차라리 죽어 버린다면 모르거니와 그러지 않다면 서울로 가는 도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순분아 내가 몹쓸 놈이다. 딸자식 하나를 남부럽지 않게 호사는 못 시킬망정 필경에는 팔아먹게 되다니.”

“글쎄 영감. 그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자 어서 이 증서에다 도장을 치시오. 자 여기 삼백원 있습니다.”

“아버지 어서 돈을 받으세요.”

“오냐 옛다 이 도장 마음대로 찍어 가시오.”

막 도장을 칠려고 할 때에,

“잠깐만.”

“오- 길룡아.”

“자 여기 돈 삼백원이 있다. 이 돈만 있으면 너는 서울로 안 가도 좋을 것이 아니냐.”

“오- 길룡아. 나는 무엇이라고 치하를 해야 옳단 말이나.”

“치하가 무슨 치하냐.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껌껌한 감옥으로 들어간들 무슨 여한이 있겠니.”

“길룡아 무엇이야?”

“아……아니다.”

그 이튿날 동리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어젯밤에 면장의 집에 도적이 들었다더라. 돈 삼백원을 훔쳐갔다더라. 이런 소동이 났을 때에 길룡이는 벌써 경관에게 단단히 결박을 당하여 끌리어갔다. 순분이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

“순분아 이것도 다 너를 사랑해서 지은 죄라고 하면은 나를 용서하겠지.”

“오냐 잘 알았다. 네가 나올 그때까지 나는 꼭 기다리고 있으마.”

“오- 순분아. 고맙다. 그 말이야말로 이 세상에 어떤 보물보다도 나에게 좋은 선물이란단다.”

“오- 길룡아.”

때마침 멀리서 들려오는 목동의 무심한 봄노래는 이런 쓰라린 슬픔도 모르는듯이 은은히 들려왔습니다. 즐거운 그 때에 들던 봄노래는 환희의 노래였건만 지금에 이 두 젊은 남녀에게는 끝없는 슬픔의 추억이 있을 뿐이었다.

(노래) 봄은 왔네 봄이 와
 숫치녀의 가슴에도
 나물 캐러 간다고
 아장아장 들로 가네
 산들산들 부는 바람
 아리랑 타령이 절로 난다
 흥……

장한몽(長恨夢)

(서월영 복혜숙 출연/Columbia 4004)

천상에 월색은 몽롱하고 대동강 잠들어 잔잔한데 때때로 불어오는 바람. 무엇인지 애통해하는 3월 열나흘 날 밤이었다. 을밀대를 등지고 지금 그 사이로 내려오는 두 사람의 그림자, 그는 이수일이고 심순애이다.

“순애 씨! 나는 가슴이 터진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할 말도 없소.”

한 걸음이 두 걸음. 그리하여 여러 걸음이 거듭되도록 순애는 대답치를 못하였다.

“수일 씨! 용서해주세요.”

“용서가 다 무슨 용서이요. 도대체 이번 일이 아버님과 어머니가 시키신 일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순애 씨 자신도 깨닫고 한 일인지 나는 그것만 들으면 그만이에요. 나는 여기에 오기까지도 믿고 있었소. 순애 씨가 설마 그러랴 하고, 믿고 못 믿고가 어디 있소. 부부의 사이인데……”

“어젯밤 나는 아버님께 들었소. 그리고 부탁이라고 하시고 또 청이라고 하십니다. 태산같은 아버님의 청이시니 나야 그 청이라면 누그러지 않을 수야 없지. 아버님의 청이라면 나는 물불이라도 뛰어들어갈 터이야

요. 그러나 부탁도 분수가 있지. 죽으라면 죽어보겠지만 이 청이야 어떻게 듣소. 이러한 소리를 하면 큰 벌이 내리겠지만, 아버님을 나는 원망하고 저주하오. 아무리 할 소리가 없기로서니 이 청만 들어주면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준다고? 아무리 이수일이가 무의무탁한 걸인이라망정 아내를 판 돈으로는 유학을 아니 가.”

수일이는 돌아서며 소매로 얼굴을 가리우고 저 하늘을 우리러 눈물을 흘린다. 주저하던 순애도 인제는 참다못해 그의 곁으로 덤비어 들었다.

“수일 씨! 제가 모든 것을 다 잘못했습니다요. 제가 제가 잘못했어요.”

순애는 수일이의 손을 잡고 수일이의 가슴에다 그 얼굴을 묻으며 순애는 흐득이며 울음을 못 참는다. 월색은 고요하여 산과 들은 비었는데 올밀대(?) 부벽루의 서로 잡은 두 그림자! 먹물을 갈아 부은 듯이 사위에 비치는가?

몸은 비록 들이지만 마음은 하나이던 그 마음조차 이제는 속절없이 달라졌다. 이와같이 생각할 때 수일이의 분함은 참으려도 참지 못해 목소리만 떨린다.

“어리석지, 어리석어. 이처럼 어리석은 놈이 이 천치에 또 어디 있어? 그래도 나는 이 이수일이가 이다지 어리석은 줄은 스물 다섯 살이 된 이 날 이때까지 몰랐다. 순애! 순애는 남편인 나를 속이었고 병 때문에 수양 왔다는 핑계로 너는 나 몰래 김중배를 만나러 왔지?”

“수일 씨! 제발 그런 애매한 소리는……”

“무엇이? 애매한 소리라고?”

“애매하구 말구요. 아무리 몰인정한 사람이기로 그렇게까지는 너무 과도하지 않아요?”

“너도 과도한 줄은 아니? 그 말이 그렇게도 서운해서 울 것 같으면 이 모욕에 서 있는 이수일이란 천치놈은 피눈물을 흘려도 시원치가 않단다. 이 말은 어찌할 셈이나? 어찌 한 마디의 의논도 내게 없어? 아무 소식도 없이 와가지고 또 한 장의 서면(?)도 없는 것을 보면 김중배와 여기서 만나자고 약속한 게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나? 아니 중배 그놈과 같이 온 모양이로군. 이 고약한 계집! 너는 카르젠이다. 너는 예고이다.”

“어쩌면 그런 소리를. 아무리 미우시기로 그런, 그런……”

“정조를 깨뜨리고 간음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나?”

“언제요. 제가 제 정조를……”

“아무리 못된 이 놈이기로 제 계집이 몸을 더럽힌 그 옆에서 보고 있어? 이수일이란 역력한 남편을 두고서 남몰래 다른 놈과 시골에 놀러를 와서 바람피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다는 말이나.”

“수일 씨! 그렇게 여기신다해도 저는 무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중배 씨와 만나는 약조가 있었는지 그것은 모두가 당신의 지레 짐작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말을 듣고 중배 씨가 따라온 거예요.”

“왜 따라왔다는 말이에요. 중배가 누굴 보고 왔다는 말이에요.”

순애의 입은 잠겨져서 이 여자는 무엇이라고 대답 한 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수일이는 반성하며 다시는 이 여자가 뉘우치며 사과한 후에 몸이나 마음가짐이나 나에게서 쫓으리라 일어서서 수일이는 생각했으나 그러리라던 그(?) 마음도 인제는 떠나버리고 다시 한번 고쳐질 기색조차 없습니다. 수일이는 일어 서서 또다시 말을 못이룬다.

숙영낭자전

(영화설명 김영환/Victor KJ-1080)

청천은 길을 덮고 수목은 첩첩한데, 낙화는 분분하여 벽계수에 흘러간다. 천지조화의 맑은 정기가 이 한 곳에 모였으니, 여기는 요지의 선경으로 속세를 떠난 옥련동이올시다. 한 밤의 날이 저물어 숙소를 찾지 못하고 헤매던 백선균은 이윽고 구름 속에 솟아난 주란 화각을 발견하고 집으로 찾아가니 난만한 꽃그늘 아래 아리따운 낭자 하나.

“그대는 어떤 속객이관대 감히 선경을 범하였나니?”

“사과하나이다. 유산객으로 산천풍광을 탐하여 길을 잃고 그릇 선경을 범하였사오니 원컨대 사뭇 생의 불례를 용서하소서.”

“그대 만일 몸을 아꼈진대 주저치 말고 물러가라.”

선군은 할일없어 청계에 내려 서니, 낭자 그제야 온면화안의 미소를 보내인
다.

“낭군은 가지 말고 내 말씀을 들으소서. 아무리 그대와 나 천정지연분
이라 한들 처녀의 몸으로야 의당 허락할 바 아니리까?”

선군은 기뻐하여 당상에 뛰어오르니 낭자의 올 때 화용은 한 떨기 모란의
이슬을 머금은 듯. 섬섬한 가는 허리는 봄바람에 흔들거리는 벼들가지와도 같
하였습니다. 꿈 속에서 만나보고 그리워서 별이 되었던 아리따운 숙영낭자!

“우리 만날 기약이 아직도 삼 년을 격하였으니 낭군은 안심하사 때를
기다리소서.”

“오 숙영낭자여! 일각이 삼추어늘 어찌 이대로 돌아가오리까?”

낭자는 할 일 없이 백옥같은 눈물의 홍옥만 깊어간다.

뜰 안에 학들이 내려 펴고 울음 울 때, 선군의 하룻밤은 무심한 듯 밝아졌
다. 낭자는 옥련동에 있지 못할 몸이라 낭자는 선군을 동행하여 안동 땅의 선
군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선군의 부모님에게 귀여운 며느리가 되어 8년 광
음이 흘러가는 가운데 춘앵, 동춘이란 남편까지 낳아서 새로운 봄바람이 일가
에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선군은 아버지로부터 과거 보러 가라는 명령을 받고 한 걸음에 낭자 생각,
두 걸음에 낭자 생각. 첫날 길을 걸은 것이 종일토록 삼십 리. 신발을 들때이
고 그 밤으로 삼십 리를 줄달음질쳐서 자기의 구원의 동별당으로 들어갔습니
다.

지금쯤 우리 낭군 어디만큼 가셨을까?

지금쯤 당신 낭군 가로수에 앉았지.

“아그머니 웬일이세요?”

“으음 떠들지 마시오. 아버님이 아시면 화근이 되었요.”

첫날은 삼십 리. 이튿날은 반 십 리. 그리고 저녁마다 집으로 되돌아와 아
내의 옆에서 밤을 새우고는 새벽에 떠나간다. 낭자의 방에서 남자의 음성이
들리매 선군의 아버지는 의심이 깊어졌다. 시비 매월이를 불러 진상을 조사케
한 것이 마침내 크나큰 화근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시비 매월이는 선군에
대하여 가당치도 않은 질투의 화살을 겨누고 있었으므로 그제 숙영낭자의 존

개를 은근히 저주하여 오던 터이었습니다. 그는 돌이라고 하는 음흉한 사나이를 돈으로 매수하여 가지고 암암리에 계교를 꾸미어 숙영남자의 방에서 소리가 새어나오는 그 광경을 선군의 아버지로 하여금 목격케 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에도 억울한 누명을 돌려 쓰고, 숙영남자는 그 밤으로 하인들에게 붙들리어 추상같은 시아버지의 호령 하에 엎디어졌습니다.

“양반의 집을 이다지도 더럽히어 놓았으니 너의 죄를 깨달을진대 외간 한 놈의 성명을 바로 대렸다.”

꿈결같이 고운 살에 사정없이 형벌이 내린다. 천만가지 말로써 남자는 변명 하였으나 누명을 벗을 길이 막연한지라, 남자는 눈물이 비오는 듯하며 옥잠을 빼어두고,

“산천은 굶어 살피사, 첩에게 죄가 있사오면 이 옥잠이 첩의 가슴에 꽃히웁고 만일에 죄가 없사오면 섬돌에 가 꽃히게 하옵소서.”

말을 마치자 남자가 공중으로 던진 옥잠은 바로 섬돌에 가 꽃히어 빙설같은 남자의 결백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광경에 놀래지 않을 사람이 누구이라? 선군의 아버지는 한없이 사과하였으나 숙영남자는 동별당으로 돌아가 드디어 자결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슴에 꽂힌 칼은 뽑히지도 아니하며 죽어 누운 시체조차 움직이지 않던 것을 선군이 등과하여 돌아온 그날, 선군의 손으로 뽑으니 그때야 칼이 뽑히었으며 그 고목에서 청조(靑鳥) 한 마리가 날라 나와 “매월입네, 매월입네” 하고 세 번을 울었습니다. 운기가 청중하고 천지가 아득한데 즉시로 매월이를 문초하여 돌이까지 불러들여, 남자의 원수를 갚아 주었습니다.

남자의 죽음을 한없이 슬퍼하는 선군의 앞으로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숙영남자는 얼마 후에 죽음에서 부활되었습니다. 선군의 기쁨이야 비할 데 있었으랴? 일생 일대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춘앵, 동춘의 행복이야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숙영남자는 다시 선군의 사랑하는 아내로서 정렬부인의 영예를 얻고 끊어졌던 두 사람의 인연은 세상의 저 강을 아울러 영원히 이어졌다고 합니다.